

등록일자 1993. 5. 29.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편집인 백정완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디자인사업부

사진 김재아·김지원

인쇄 금강인쇄



enjoy_chuseok

@정대우 과장
#추석에도 #정대우가간다

- | | |
|---|---|
| 4 <u>news</u> | 9+10 Daewoo E&C News |
| 8 <u>DW history</u> | 국내 최고 건설명가(名家)로 다시 서다 |
| 14 <u>with 마음</u> | 세상과 나를 잇다

듣다_마음과 마음이 만든 보다 살만한 세상

보다_‘같이’의 가치를 높이는 마음 나누기

하다_회복탄력성 테스트 |
| 22 <u>TV-CF</u> | 2022 대우건설 TV-CF On-Air |
| 26 <u>the best site</u> |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현장 |
| 34 <u>ESG now</u> | 저탄소 친환경 기술 개발 |
| 36 <u>our people</u> | 슬럼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 40 <u>DW manual</u>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사업 |
| 42 <u>with family</u> | 2022년 꿈나무 초대행사 |
| 48 <u>special</u> | 정직과 성실로 세운 정도경영正道經營 |
| 50 <u>we are challenger</u> | 나와 강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 |
| 56 <u>trend issue</u> | 新명절 트렌드 |
| 58 <u>healthy life</u> |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 |
| 60 <u>cartoon</u> | 일상공감툰_송편 빙기 |
| 62 <u>letter from SNS</u> | 그리고, 다시 만난 가을 |
| 63 <u>post box</u> | 2022 7+8 이벤트 당선작

2022 7+8 독자의견 |
| + <u>event</u> | 엽서_다른그림찾기 이벤트 |

9+10 DAEWOO E & C NEWS



필리핀 신규 사업 진출 가속화

지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정원주 쟁총그룹 부회장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 파트너사 및 고위급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방문 기간 중 정 부회장은 지난 6월 30일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을 접견해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 필리핀 투자 사업에 대해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개발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종흥그룹과 해외사업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이 함께 필리핀에서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중흥과 대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추가로, 회사는 필리핀 국내 원전 사업에 관심 의사를 전달하고,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매립가스 발전(Land Fill Gas) 사업을 소개하며 이를 필리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는 마누엘 보노안(Manuel M. Bonoan) 필리핀 교통부 장관과 만나, 필리핀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사는 현재 필리핀에서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과 민관합작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전달했으며, 필리핀 교통부 측에서는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한편 회사는 필리핀 대통령 접견에 함께 참석한 LCS 그룹이 추진 중인 마닐라 도심의 대형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초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단계부터 상호 협력하여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유니세프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 25일, 회사는 유니세프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첫 해외 사회공헌활동으로 회사는 이라크 바스라주 알포(Al Faw) 지역 5개 학교에 식수위생 시설과 학습공간이 완비된 영유아 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영유아 교육센터는 현지 어린이 750여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3년간 유니세프에 후원하며, 이 후원금은 영유아 교육센터 설립 및 교사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수출용신형연구로 및 동위원소활용연구센터 착공식



수출용신형연구로 착공

지난 8월 3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수출용신형연구로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의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는 하부구동 제어장치, 판형 핵연료 등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최신기술을 적용한 15MW급 연구용 원자로로 지하

4층~지상 3층의 개방수조형 원자로와 관련계통 및 이용설비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9월 1일, 회사는 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원자력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국내외 사업영역 확장에 나섰다. 회사는 원전시장의 설계부터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와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력까지 토탈솔루션 제공 기술력을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원전기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추석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조기 지급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조기 집행한 외주비 등 공사대금 지급 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상 업체는 약 500여 개다.

회사는 원자재값, 노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뜻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으며,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방침이다.



CEO 안전점검

지난 8월 24일, 다산진건 A5BL 공공주택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백정완 사장은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겸손한 자세로 안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수성레이크푸르지오현장 준공

지난 8월 26일, 수성레이크푸르지오현장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49층, 2개동 아파트 332세대, 1개동 오피스텔 168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했다.



평택 화양지구(9-2BL) 신축공사 수주

지난 8월 17일, 회사는 평택 화양지구(9-2BL)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아파트 8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현장 준공

지난 8월 26일,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현장이 수원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3층~지상 15층, 17개동 아파트 1,0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했다.

2 0 0 4



2 0 1 0

DW history는 50주년을 앞두고 대우건설의 지나온 발자취를 만나보는 연중 칼럼입니다.
다음 호는 세계 최고를 향한 통합과 도전(2011~현재)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 및 시공업계 정상의 역사

회사는 IMF와 워크아웃 등 혹독한 위기를 헤쳐나가며 재도약에 힘썼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의 성공 및 시장 경기 회복으로 워크아웃을 출업함과 동시에 2006년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인수되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이후 2010년 산업은행 재매각 등을 거치며 파고를 견뎌온 회사는 이러한 각종 이슈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토목 기술과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국내 최고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충실히 다져나갔다.

‘국내 최초 해저 침매터널’,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등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거가대교 공사 및 국내 최초의 조력발전소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규모를 자랑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시공하여 자타공인 국내 건설사 중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냈다.

또한 월성원자력 3, 4호기, 신월성 원자력 1, 2호기 등 상용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 다수의 원자력발전소와 시설 시공 실적 등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공사를 따내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원자력 분야 EPC(설계, 구매, 시공)사업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2006년에는 해외 부문 매출이 60%나 늘어난 8,044억 원을 기록, 국내 최초 해외 건설 수주 16억 달러 달성을 이루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내기도 했다.

회사는 이러한 공사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인정받아 건설교통부의 평가 기준 제시 및 대한건설협회가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실제 회사의 당시 수주량(2006년 8조 4,469억 원에서 2008년 10조 6,963억 원)과 매출(2006년 5조 7,289억 원에서 2008년 6조 5,777억 원)에 있어 성장 수치는 뚜렷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명실상부 건설명가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세계 최대, 국내 최초의 역사를 세우다

DAEWO HISTORY

세계 최대·최장의 기록,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거가대교

회사가 시공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조력발전소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규모를 자랑한다. 국내 청정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04년 착공한 이후 7년 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1년 8월 시험 발전을 개시해 2012년 2월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다. 총 사업비 3,135억 원을 들여 13만 8000m²(총구장 12개 크기) 면적의 부지 위에 조성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생산량은 5억 5,270만 kWh로 50만 명 인구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간 86만 2,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해 약 1,020억 원에 달하는 유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청정개발제제(CDM)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2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는 '토목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회사는 국내 최초로 조력발전소를 시공했다는 위상과 함께 이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임을 다시금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거가대교는 '국내 최초 해저 침매터널',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등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 거가대로 완성으로 부산~거제 거리가 종전 140km(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거제 고현터미널)에서 60km로 단축됐고, 3시간 넘게 걸리던 통행 시간도 40분으로 줄었다.

거가대교는 국내 최초로 침매터널을 시공해 기술력을 입증한 공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침매공법이란 육상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부력을 이용해 물 위에 띄워 설치지점으로 운반하여 가라앉힌 후 수압 차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서로 접합시켜 터널을 완성해가는 공법이다. 회사는 시공한 이 침매터널은 단위 길이가 18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침매터널이며, 최고수심도 48m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터널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회사는 침매터널 시공을 위해 해저지반면을 오차범위 20mm 이내로 포설할 수 있는 정밀 포설장비를 개발하였고, 깊은 심도에서 초대형 침매함체를 섬세하고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정밀위치 조절장비인 EPS(External Positioning System)를 개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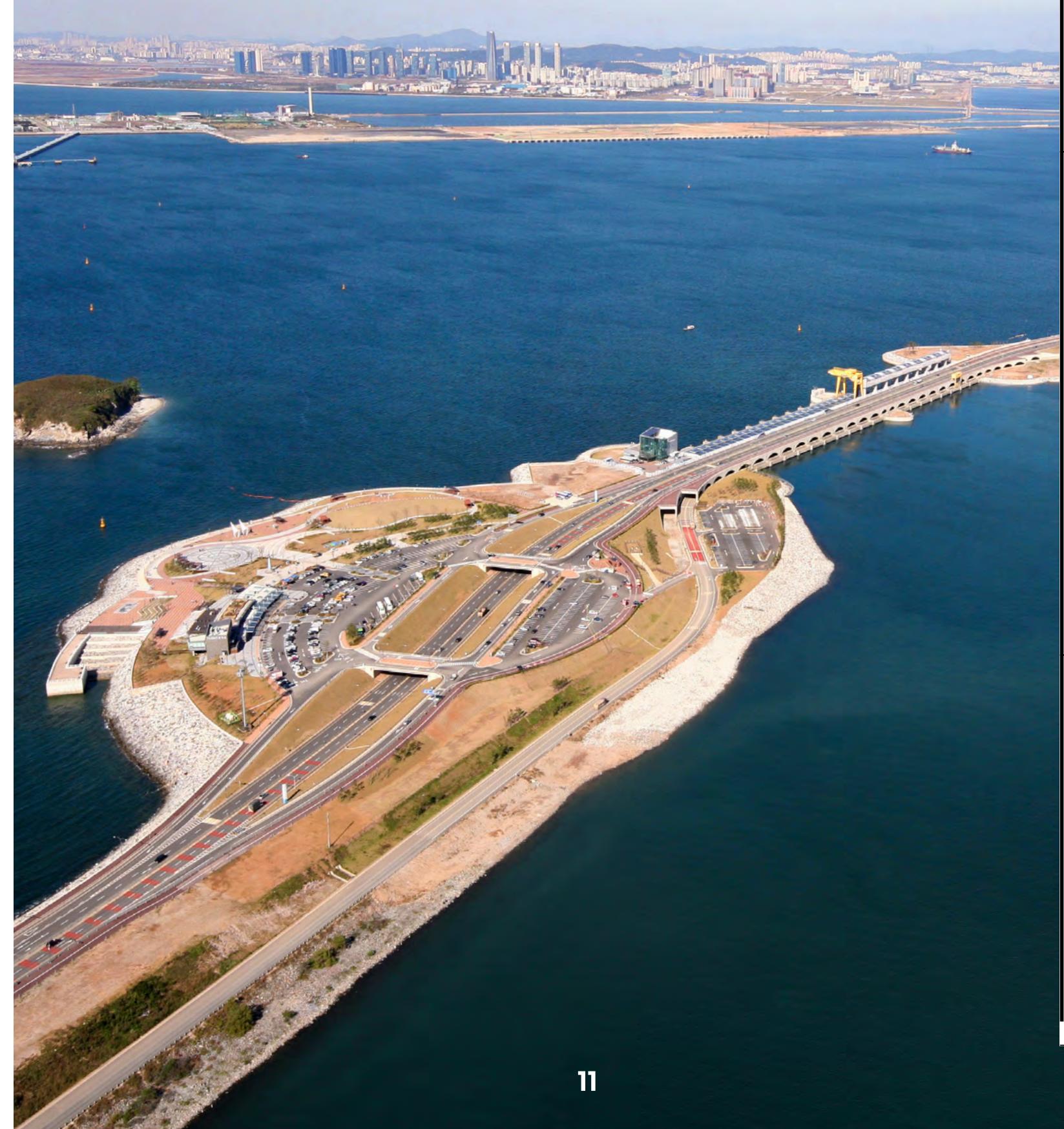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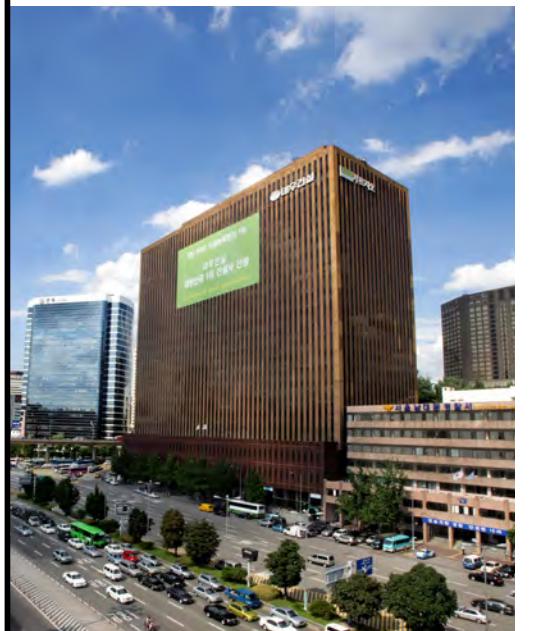
이 기술들은 특히 출원을 통해 해외 시장 선점에 강점으로 회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되었다.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달성

회사는 탄탄한 공사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인정받아 건설교통부의 평가 기준 제시 및 대한건설협회가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 및 도급하한제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2006년 실적향상과 이의 증가에 따른 경영평점 상승에 힘입어 유수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올라섰으며, 2007년에는 경영평가와 기술능력평가에서 수위를 기록했다. 이후 2008년 팔목할만한 성장세 속에서 독보적인 시공능력평가액을 인정받아 결국 3년 연속 1위라는 역사를 남긴 것. 이는 회사가 명실상부 국내 건설업계의 정상임을 다시금 입증해보인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 개발

DAEWOOD HISTORY



시화호 조력발전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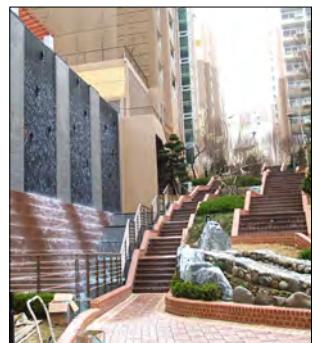
시화호 조력발전소 착공
국내 최초의 조력발전소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규모를 자랑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004년 착공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2012년도 건축기술대상'에서 '토목부문 대상'을 차지하였다.

거가대교 착공

'국내 최초 해저 침매터널',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거가대교가 2004년 착공했다. 국내 최초로 침매터널을 시공해 기술력을 입증한 공사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으며 적용된 신기술들은 특허출원을 통해 해외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되었다.

2005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대통령상 수상
길음 푸르지오가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여성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 브랜드로 선정되며 회사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길음푸르지오 크리스탈산책로**국내 최초 해외 건설 수주**

16억 달러 달성
해외건설의 새로운 중흥기로 기록된 2006년은 해외 부문 매출이 전년도 대비 60%나 늘어난 8,04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주 잔고는 회사의 해외사업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토목, 건축 기술대상 종합대상 수상

회사가 시공한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제3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혐오시설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6

2007

3년 연속 대한민국 시공 평가 1위

회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회사의 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 받은 것으로 이를 통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건설사로서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2008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

푸르지오가 '2008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품질 관리로 차별을 꾀하면서 7년 연속 주택 공급 1위의 신화를 써내려간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말레이시아 KLCC타워

2008

시공능력평가 1위

2009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공사 수주

2009년 5㎿급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공사를 따내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원자력 분야 EPC(설계, 구매, 시공)사업에 진출하였다. 이를 통해 회사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최초 자동차전용 침매터널 '거가대로' 개통
바닷길을 국내 최초의 해저 침매터널과 사장교로 연결한 거가대로가 개통되었다. 부산과 거제를 횡단적으로 잇는 대역사의 현장으로 총 8.2km 구간에 건설기간만 72개월이 소요됐으며 총 공사비도 1조 9000억 원이 투입됐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공사 수주

회사가 2010년 국내 최초로 양성자가속기 건설공사를 따냈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일원에 양성자가속기와 빔이용연구동, 유틸리티동, 수전설비동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회사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양성자가속기 실적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2010

거가대로**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2004 - 2010

사람에게 가장 사람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 법정스님 〈인생응원가〉 中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물건, 재능, 시간, 가치, 지식, 마음….
그중에서도 나눔으로 가장 커지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웃과 매일 나누는, 소소하고
평범한 마음은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꽃피우는 작지만 위대한 씨앗입니다.

with

마음

마음과 마음이 만든 보다 살만한 세상



#김람원 사원
#매교역푸르지오SKVIEW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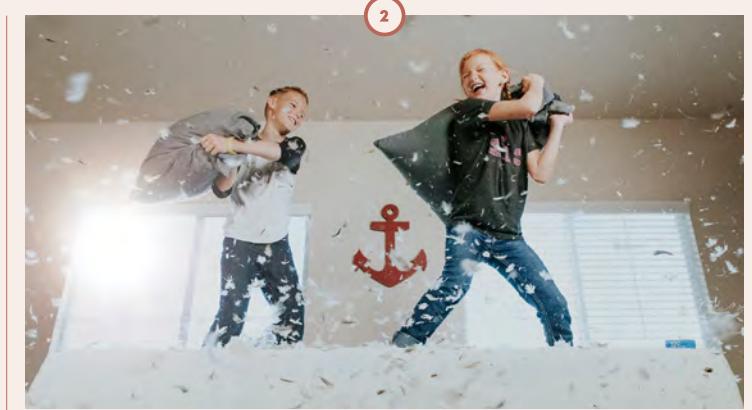
포켓몬 스티커 열풍이 한창일 즈음, 스티커를 많이 갖고 있었던 덕분에 직원들에게도 많이 나눠 주었는데요. 특히 아이를 가진 직원들의 열광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고마움에 자기도 보답을 하고 싶다며 직접 그리고 오린 그림을 저에게 선물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칫 삽질할 수 있는 직장 동료라는 관계가 그 아이의 선물 덕분에 보다 깊어지고 따뜻해질 수 있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인재우 사원
#구미푸르지오엘리포레시티2단지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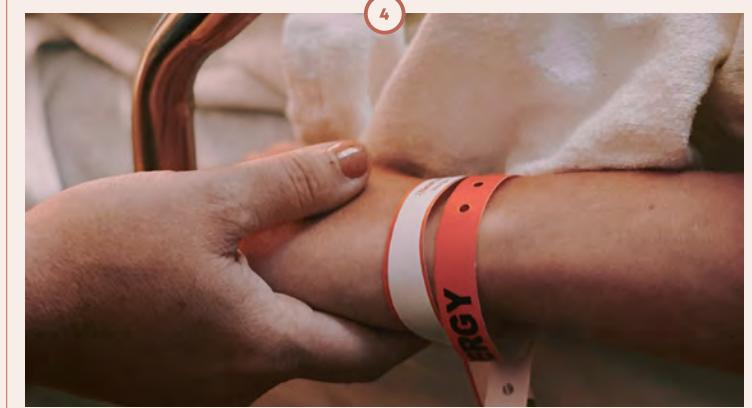
현장 OJT 기간 동안 단지 일주일만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셨던 동료와 선배님들이 생각납니다. 집 떠나 현장에서 생활하는 고충도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수시로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수 음식을 만들어주시면서 따뜻하게 챙겨주셨던 모과장님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현장 식구들도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본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진짜' 마음 나누기입니다. 회사에서 혹은 이웃 간에, 내가 만났던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느꼈던 대우인들 삶의 소소한 감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상환 대리
#플랜트견적팀

아파트 윗층에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행여 아이가 뛰어 놀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직접 담근 김치 한 포기와 맛있는 수박을 갖다 주시더군요. 이웃에게 먼저 내미는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한없이 넉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웃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마찰 같은 것은 없을텐데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재범 차장
#화성화옹농업단지5공구현장

몇 해전 희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식구는 물론 본사 상무님께서도 직접 병문안 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어 지금 이렇게 복직해서 다시 건강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지만 마치 가족같은 따뜻함을 선사해주었던 그 분들이 오늘따라 많이 생각나네요.



#이수연 대리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현장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절의 순간을 맛보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마다 '이대리, 잘하고 있어, 너가 최고야!'라고 항상 격려해주셨던 팀장님과 팀원들이 있었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쟁쟁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직장 동료들은,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저에게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온, 따뜻하고 든든한 제2의 가족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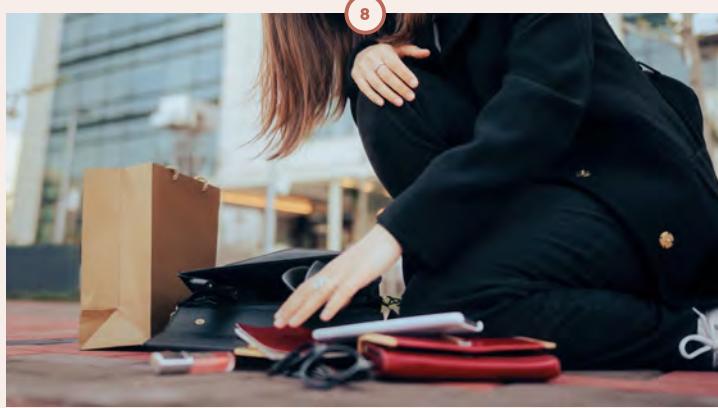
#김갑식 과장
#주택건축현장지원팀

지난 현장에서 공무로 근무할 때, 와이프가 아파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났는데, 현장 관리부장님과 공무보조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병원으로 찾아와 상심해있는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따뜻한 이웃들로 인해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홍영준 과장
#주택건축사업3팀

윗층에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에 짜증이 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윗집에서 '직접 키운 건데 같이 나누고 싶다'는 메모와 함께 각종 채소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문고리에 걸어주셨더군요. 소소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그동안 짜증났던 마음이 삭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방민선 사원
#품질환경경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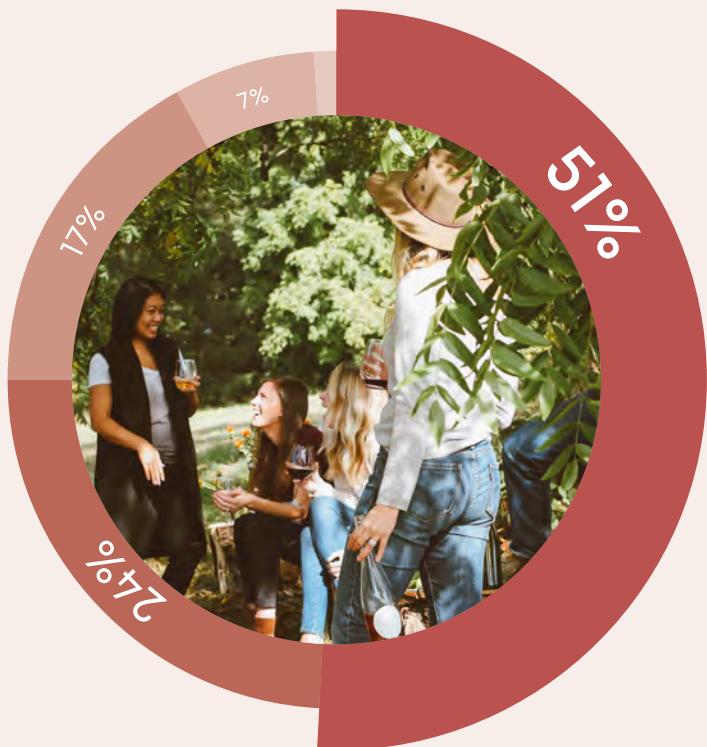
많은 짐을 들고 가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제 가방 안에 있던 잡다한 물건들이 모조리 쏟아져 버스 바닥에 굴러 다녔습니다. 당황하면서 물건들을 꾹고 있는 와중에 한 시민 분이 저를 도와 일일이 물건을 주워 주셨습니다. 덕분에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다치지 않고 물건들을 모두 챙길 수 있었고요. 이런 분들 덕분에 세상이 아직은 참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같이’의 가치를 높이는 마음 나누기

주변인들과 마음을 나누며 쌓아가는 두터운 믿음,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좋은 조직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기분 좋은 일거름이 됩니다.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마음 나누기에 대한 대우인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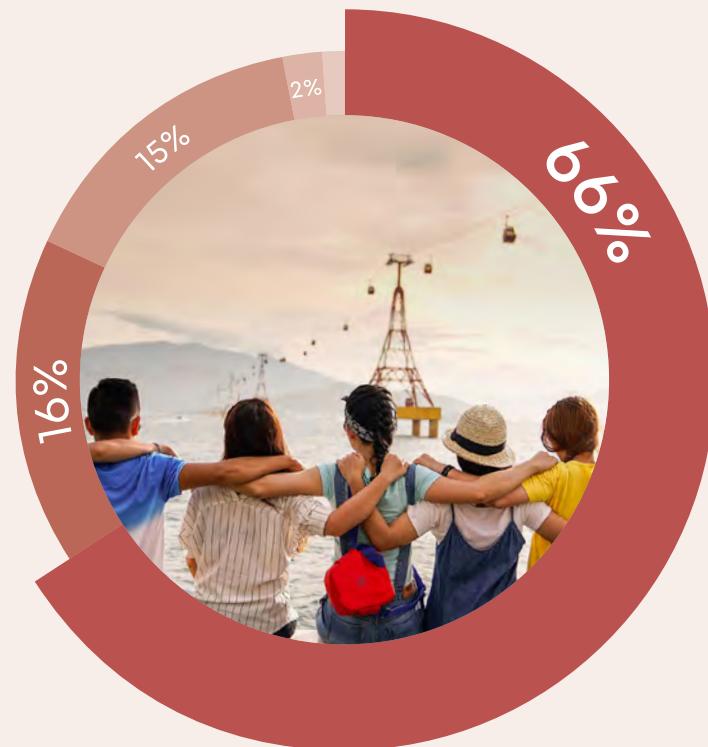
1

나는 동료 혹은 이웃과 어느 정도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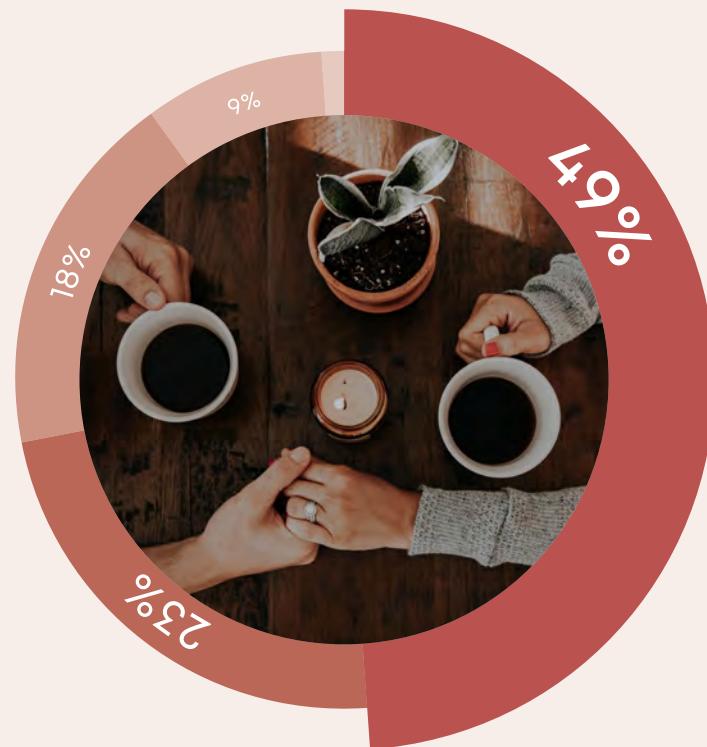
2

마음을 열어 진심을 다하는 관계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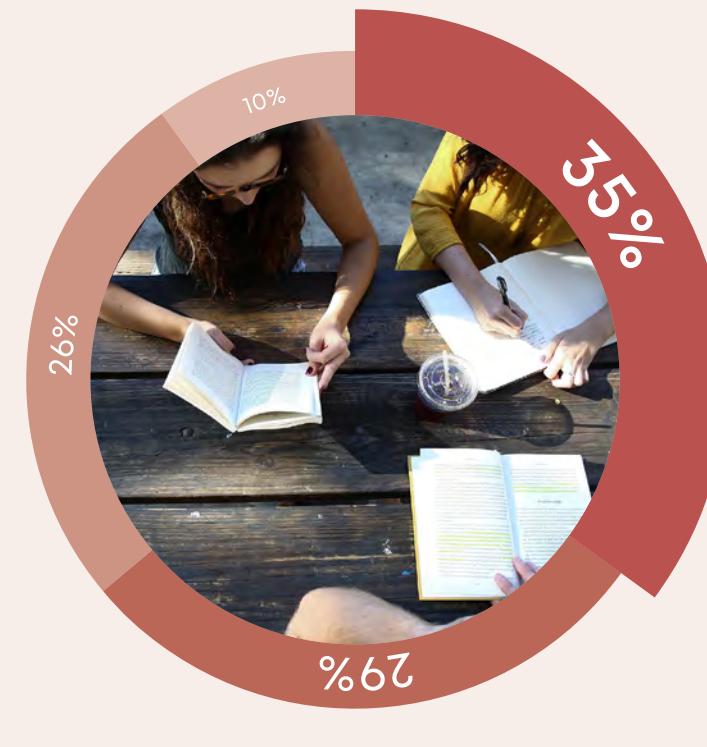
3

동료 혹은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나만의 방법은?



4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한다. 51%

■ 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아는 친밀한 직장동료들이 있다. 24%
■ 친한 이웃이나 동료와는 사소한 비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다. 17%
■ 무리한 부탁도 들어줄 수 있는 이웃이나 동료들이 있다. 10%
■ 결국은 경쟁관계. 직장동료와는 마음을 나누기 힘들다. 1%

■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무조건 믿고 지지해줄 수 있는 관계 66%

■ 집안의 상세한 근황까지 공유할 정도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관계 16%
■ 가족에게는 말 못할 비밀도 털어 놓을 수 있는 관계 15%
■ 거액을 빌려 주거나 투자를 요청하는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관계 2%
■ 잊을만하면 전화나 문자라도 나누는 관계 1%

■ 가끔 만나도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49%

■ 기호나 취미 등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교감하려 노력한다. 23%
■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자주 만나려고 노력한다. 18%
■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 가족들도 다 함께 소통하며 지낸다. 9%
■ 나의 의견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해준다. 2%

■ 공통된 관심사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교류를 통해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35%

■ 동료들과 가까워질수록 회사 내에서 업무 능률이 오르고 조직에 더 쉽게 통화될 수 있다. 29%
■ 관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 26%
■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많아지면 그만큼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다. 10%

건강한 마음 근육 키우기

회복탄력성 테스트

삶이란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때론 높은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원래
위치보다 높이 도약하기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비밀은 바로 회복탄력성에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한다.
이 회복탄력성은 근육과 같아서 타고난
성격이나 환경 등의 영향도 받지만, 그 마음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고 발달시키는 사람의
영향 또한 크게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역경을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나의 회복탄력성 지수를 체크해보자.



전혀 그렇지 않음 (1) / 그렇지 않음 (2) / 보통임 (3) / 약간 그리함 (4) / 매우 그리함 (5)

항목	1	2	3	4	5
1.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 할 수 있다.					
2.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3.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4.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바람이 나기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5. 나는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6. 때때로 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집중하기 힘들다.					
7.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내고 할 일을 한다.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9.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10.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1. 평소 경제적인 소비나 지출 규모에 대해 별 다른 계획없이 지낸다.					
12.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13.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4.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6. 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7.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8.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20.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한다.					
21.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22. 나는 윗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3. 나는 대화중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화 내용을 놓칠때가 종종 있다.					
24. 대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					
25.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항목	1	2	3	4	5
28. 나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때로 이해하기 힘들다.					
29. 친한 친구나 애인 혹은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30.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31.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32.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33.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34.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35. 나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36.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37.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8.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9.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40. 내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걱정한다.					
41.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로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는다.					
42.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43.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44. 내 인생의 여러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45.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6.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갖고 있다.					
47.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현재 삶을 다시 살고 싶다.					
48.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49.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50.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사건, 생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간다.					
51.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5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은 별로 없다.					
53. 사람이나 일에 대한 고마움을 한참 시간이 지나 후에야 겨우 느낀다.					
합계					

〈회복탄력성지수 테스트〉

* 해당 칸에 ○표 하세요. 반드시 하나의 칸만 선택하세요.
* 참고: 김주환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의 KRQ-53 테스트



✓ 당신의 회복 탄력성 점수는?

* 4, 5, 6, 10, 11, 12, 16, 17, 18, 22, 23, 24, 28, 29, 30, 34, 35, 36, 40, 41, 42, 51, 52, 53번 문항은 6에서 자신의 점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점면 5점, 3은 3점, 5는 1점입니다.

· 220점 이상: 회복탄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웬만큼 불행한 사건은 당신을 흔들어놓지 못하며 오히려 역경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190점 이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180점 이하: 소소한 부정적인 사건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회복탄력성을 빨리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 170점 이하: 깨지기 쉬운 유리같은 사람으로, 작은 불행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지금 당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195점)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2022 대우건설 TV-CF On-Air

지난 8월 15일, 회사의 새로운 기업PR 광고가 런칭되었다. 지난 반세기 주택, 건축, 토목, 그리고 플랜트까지 수많은 성과들로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견인해 온 대우건설. 변화하는 기업의 가치평가 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광고는 회사의 이러한 ‘미래지향적 DNA’를 표현하며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새롭게 표현해내고 있다.



#1

해저터널 기술

광고는 광활한 바다에 지어진 기나긴 대교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승용차 한 대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하자 차창 밖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이의 시선 끝엔 거대한 바다거북이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와 함께 유유자적 바다 속을 유영을 하고 있다. 이는 해저 48m, 3.7km길이의 거가대교 해저터널 구간 완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침매터널 시공기술을 입증한 대우건설이 생각하는 머지않은 미래의 LED해저터널 모습이다.



미래를 향한 Great Possibility를 담다
‘바다 속 해저 마을, 에너지 걱정 없이 사는 세상,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 하얀 스케치북 위에 몇 십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막연했던 상상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현실로 구현되는 세상이 되었다.

새로운 광고는 이렇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의 ‘미래지향적 DNA’를 3가지 소재를 통해 표현해 내고 있다.

#2

친환경 발전 산업

파도 치는 해변가, 바다 위 출지어 설치된 거대 풍력발전기의 모습이 보인다. 이어 녹음이 짙은 험준한 산과 산 사이에 지어진 다리 교각 사이마다 미학적 문양을 띤 풍력발전기들이 거대한 프로펠러를 움직이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부유체 독자 기술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의 친환경 풍력 발전 사업의 모습이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대우건설 TV-CF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3D로 생생한 현실감 표현

광고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웅장하게 솟아오르고, 태양 높이까지 뻗어 나오는 거대한 건축물의 모습을 통해 대우건설의 위대한 가능성, 즉 'Great possibility' 정신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이번 광고는 무엇보다 실감나는 3D가 특징. 아직 실존하진 않지만 곧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구현해야 했기에 3D 작업에 수개월 간의 공을 들여야 했다. 덕분에 현실감 넘치는 3D로 대우건설의 위대한 가능성을 퀄리티 높게 표현해냈다.

회사가 그리는 다양한 미래의 건축물을 미리 만나보는 재미와 함께 또 어떤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낼지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광고를 통해 대우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보자.



#3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플랫폼

미래 푸르지오에 사는 입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까? 모델이 앉은 소파 뒤로 온도, 습도를 자동 조절해 채소를 재배하는 푸르지오 만의 스마트팜이 보인다. 회사는 최근 실증연구 업무협약 체결로 발전소 부생열과 CO₂를 활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융복합 스마트팜 연구를 시작하며 미래에 누리게 될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에 더욱 기대감을 고조하고 있다. 이어 소파에서 일어난 모델이 펜트하우스 루프에 설치된 버티포트로 발걸음을 옮기자, 세련된 디자인의 승용 드론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푸르지오 입주자들이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플랫폼을 통해 승용 드론으로 편안히 이동하며 하이테크 라이프를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대우건설의 청사진이 담겨 있는 장면이다.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현장

광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중심, 광명뉴타운에서 푸르지오의 이름으로 우뚝 선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현장. 광명뉴타운이라는 최적의 입지에서 광명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각인될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는 푸르지오만의 새로운 프리미엄 대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GWANGMYEONG PRUGIO CENTVER

규모
지하 3층 ~ 지상 37층, 12개 동,
전용면적 36 ~ 84m², 전체 1335가구

공사기간
36개월
2019년 10월 31일 ~ 2022년 10월 30일

면적
대지면적 41,690m²
연면적 168,059m²





28

지하 3층~지상 37층, 12개 동, 전용면적
36~84m², 전체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로,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4Bay와 1~2인 가구를 위한 원스톱 특화
공간 2ba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터와 커뮤니티 광장 등을
녹지공간으로 조성,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했다.

29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를 통해 일조권과
통풍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수많은 굴곡을 이겨내고도 준공 일정을
맞춘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려준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 생활, 교통의 프리미엄 인프라를 누리다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뉴타운 15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현장으로 2018년 이후 및 철거를 시작하여 2022년 10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7층, 12개 동, 전용면적 36~84m², 전체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로,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4Bay와 1~2인 가구를 위한 원스톱 특화 공간 2bay 등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한 것이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교육, 생활, 교통 등 탄탄한 인프라가 가져다주는 프리미엄도 이곳의 특징.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며,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까워 수도권 도심 및 광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및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전철 사업 추진, 2023년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연장선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 등이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데,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초중고 대규모 학군이 밀집해 있으며 각종 대형 마트와 영화관, 쇼핑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다.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에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프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거주자들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를 통해 일조권과 통풍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또한, 보행자 이동 동선을 따라 사계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단지로 단지 내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상쾌한 힐링을 선사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녹도를 설치 중인데,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마치 공원 안을 거니는 느낌을 선사하는 친환경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을 커뮤니티 광장 역시 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이곳에 자리잡은 티하우스를 입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게 배려한 점도 특징이다. 또한 대표적인 힐링공간인 102~103동 사이 테마쉼터는 아담한 오솔길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입주민들이 진정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하였다.

새로운 도전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현장은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PC공법’ 적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PC공법’이란 전통적인 RC(철근콘크리트) 방식과 혁신적인 PC(사전제작 콘크리트) 공법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12개동 중 5개동의 옥탑 구조물에 적용되었다.

이 공법은 구조체 거푸집을 PC로 만들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일체화시키는 ‘더블월 공법’과 닮았지만, 내외벽 PC벽판을 철근 등으로 고정한 상태로 운반하는 더블월 공법과 달리, 내외벽을 독립적으로 각각 설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자랑한다.

수원 기술연구원에서 목업(Mock-up)을 4차례나 진행하고도 현장에서 개선점이 나올 만큼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거친 결과물이라 더 뿐듯할 수 밖에 없다.

“하이브리드-PC”的 최대 장점은 후속 작업을 없앰으로써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현장 시공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공사 기간도 기존 RC방식보다 짧고, 공사는 Full-PC 공법보다 저렴합니다. 설치 기간은 옥탑 한 개소당 약 3주 정도 걸리지만 벽체 철근, 양생, 서포트, 거푸집, 외부 비계 등의 후속 작업을 포함하여 비교했을 경우 1~2개월이 걸리는 RC 방식보다 공기단축 효과가 매우 우수하죠. 또한, RC방식의 외부 시스템비계가

아닌 맞춤 제작된 워킹타워(가설계단)를 사용함으로써 공기단축 및 안전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이 공법을 적용하여 옥탑 구조물 설치가 앞당겨지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의 철거 시점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 현장 시공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시공법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곳과 달리 재개발 현장이라는 특성을 지닌 이곳은 그립기에 더욱 기존 구 도심과의 조화로움에 가장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현장 운영시에도 사전 계획을 통해 훈스 주변 블록을 가로지르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이동통로를 조성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철거 및 이주 때부터 인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해 조화로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왔다. 광명시와 협업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다양한 CSR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광명근로장애인기업 방문 및 기념품 증정, 너부대공원재생사업 탈 만들기 봉사활동, ‘광명이 푸르지오’ 훈스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현혈봉사, 도덕산공원 생활방역봉사, 뚝방길 연탄나눔봉사, 저소득층 물품지원봉사, 유아용 소형 마림바 악기 만들기 봉사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영범 현장소장은 광명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직접 단지에 녹여낸 셈이다.

온갖 역경을 극복한 단합의 위력

공사를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다양한 이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었다. 공사 초반에 토공사 중 암반과 폐토사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불규칙한 지반 현황으로 인해 지정공사 공법 또한 자주 변경되어야 했다. 2020년 지하공사 진행 중에는 워킹데이 253일 중 69일 동안 비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특히 2020년 여름 장마철에는 3개월 동안 워킹데이 중 33일 간 비가 내려 현장 공정 진행에 큰 차질이 있었다고.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골조업체의 부도 및 코로나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수많은 장애물들이 이들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장 직원들은 단합해서 하나가 되는 위력을 발휘했다.

조기 출근, 야간 작업은 기본이고 동절기 습식 공사 등도 병행함으로써 결국 준공 일정을 맞췄고, 10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이제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수많은 굴곡을 이겨내고도 준공 일정을 맞춘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려준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소에 래프팅과 산악바이크, 요트체험, 족구, 육상이, 제기차기 등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장 밖에서도 함께 웃고 즐기는 기회를 많이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합이 되었고, 이는 곧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의 밑바탕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훈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이들은 함께였기에 지금까지 어깨를 두르며 달려올 수 있었다. 남다른 땀과 열정으로 세워 올린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함께’라는 가치 속에 누리는 광명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이프가 기대된다.



박영범 현장소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장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중대재해 없이 최선을 다해온 우리 현장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끝까지 노력하여 광명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저탄소 친환경 기술 개발



ESG 경영이 트렌드를 넘어서 경영의 기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기존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건설 산업의 경우, 저탄소 친환경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회사 역시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중심으로
스마트건설 안전과 탄소중립을 통한 ESG경영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파트린드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탄소배출권 획득

회사는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 및 판매하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일정 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하여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 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으며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으로, 지난 2017년 11월 완공되어,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UN에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 8천 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약 12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추진

회사는 그동안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시화호조력발전PJ와 태양광을
이용한 제주감귤태양광PJ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영월 에코원드
풍력발전사업의 수주를 통해 풍력발전 시장에 진입했다.

강원도 영월에 4.2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풍력발전기 24기, 80MW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산림 훼손 면적
및 생태계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풍력발전기 11기, 46MW 규모로 사업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 이상의 대체산림 식생복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자연식생을 최대한 복원할 계획이며, 나아가 지역주민이
직접 풍력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발판삼아 회사는 씨앤아이레저산업, SK디앤디와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웅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약 240MW급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28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2011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수심 40m 이내의 해상에서 3MW 이상급 풍력
발전 터빈과 타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고정식 하부구조
시스템을 개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적용하기도 했다.

#3. 수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친환경 시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수소경제는
ESG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작년 4월, 회사는 충북 인프라
에너지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충북 수소연료전지 융복합형 발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발전사업은 음성군 소재의 충청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시간당 전기생산량 200MW급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및 연기, 악취 소음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전력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약 1700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4.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급속한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 추세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 최적화, 에너지 절감 캠페인, 온실가스 대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전략 수립

2021~2025(단기)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구축
- 단·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최적화
- 탄소배출권거래제 편입 사전 대응
- 온실가스관리시스템 고도화
-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자원·에너지 효율화
- 협력회사 기후변화 관련 상생방안 모색

연간 감축률 4.2%
2022년 총 배출목표량 59,563 tCO₂eq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실행

2026~2030(중기)

- 저탄소 경영체제 정착 및 활성화
- 국내외 저탄소 사업 선도 기업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자원재활용 등)
- 국내 제로에너지건축 시장 주도
-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수주인계
- 주요 이해관계자(공급망, 고객, 협력회사)
온실가스 배출절감 활동 강화
-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시장 선도

1.5°C 기준 부합

기후변화 시장 선도

2030~2050(장기)

- 건설업계 기후변화 대응 Leader
- 대우건설 탄소중립 실현
- 저탄소 사업 글로벌 리더
- 제로에너지건축 글로벌 리더
- 친환경/기후변화 대응 기술 상용화 및 시장 점유
- 주요 이해관계자(공급망, 고객, 협력회사)
탄소중립 실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합

슬럼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 급작스레 찾아온 이유 모를 무력감.
남녀노소 막론하고 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슬럼프는, 어쩌면 우리에게 쉬어가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열심히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기회의 선물일지도. '찐우정' 자랑하는 대우의 입사 동기들이 만나 나누는,
슬럼프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에 대한 이야기.

김주선 사원
브랜드마케팅팀

조가은 사원
인재채용팀

최덕현 사원
공공사업1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대우건설인들의 '슬럼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1. No mercy! 자비없이 찾아오는 슬럼프

©최덕현 이번 이야기 주제를 듣고 '내 인생에 슬럼프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됐는데, 다들 그렇듯 20대에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깊은 슬럼프에 빠졌었던 것 같아. 친했던 친구들은 각자 전문직이나 공무원, 자격증 등 시험이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그 시기엔 같이 놀면서 고민을 나눌 친구도 없이 단순히 수업 들으면서 공부만 하던 시기가 굉장히 재미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던 나날이었지. 그때 마침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그게 나에겐 슬럼프에서 탈출하게 된 계기가 됐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테니스를 치고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 즐기다 보니까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전환도 되더라고. 지금은 테니스 실력이 늘지 않아 그게 또 다른 슬럼프가 될 참이야, 하하.

©김주선 나는 특별히 심각한 슬럼프가 문제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워낙 성격이 금방금방 털어내는 편이거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잊는 단순한 성격이 살면서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도 살면서 슬럼프를 아예 피할 순 없잖아. 나는 열심히 준비했던 일에서 생각보다 원치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금방 슬럼프에 빠지는



조가은 사원



#2. Cheer up! 긍정과 열정으로 극복하기

©김주선 다들 회사생활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적은 없어? 나는 지금 하는 업무에서 스스로 내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느낌? 그런데 이게 회사 일이 아닌,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최고였어!



©조가은 난 진짜 다양하게 슬럼프를 겪어온 것 같아, 하하. 입시 준비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슬럼프를 겪기도 했고, 다이어트를 할 때 정체기가 오면서 또 극심한 슬럼프를 겪기도 했고. 취업 준비할 당시에는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합격하는데, 나만 계속 불합격하게 될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당시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답답하기만 했지. 그 상태로 계속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나 자신에게 휴식을 주자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운동도 하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게 도움이 됐어. 당시에 내가 지치지 않게 옆에서 계속 조언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께 참 감사하지.

대처하다 보면 다시 열정이 막 샘솟더라고. 내가 ENFP다 보니 힘든 일도 하루이틀 지나면 금방 톡톡 털어내는 편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회복탄력성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인 듯. 힘들 때마다 항상 '날마다 잘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어. 결국엔 다 잘 풀릴거야' 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최덕현 아, 나도 회사 생활에서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가끔 있지. 난 경쟁 수주전에서 지게 되면 그때 딱 슬럼프가 오더라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회사에 죄송한 마음이 합쳐진 건데, 이런 슬럼프는 사실 다음에 승리로 설욕하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 그럴 땐 또 뿌듯해져서 다시 열정에 불타오르지, 하하.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그 문제에 깊이 몰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럴 땐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몇 시간이고 게임에 몰입할 때도 있거든. 인생이라는 고개를 넘으면서 슬럼프라는 저점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걸 잘 극복해내기만 한다면, 저점을 통과한 후 맞게 되는 인생의 고점에서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항상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조가은 난 슬럼프가 왔다고 느꼈던 순간은 크게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평소와 다르게 의욕이 없고 힘빠지는 순간들이 슬럼프 아니었나 싶어. 그럴 땐 뭔가 거창한 걸 하기보다는 그냥 퇴근하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읽고 싶던 책을 읽기도 하고, 동기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기분 전환을 하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힘들 땐 같이 일사한 동기들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더군. 사실 슬럼프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뭐든 마음먹기 나름이잖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게 곧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지. 그렇게 이제껏 잘 버텨온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와줘서 고맙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씩씩하게, 나답게 잘 이겨내 보자!'



김주선 사원





상상을 현실로,
첨단기술 집약한 꿈의 모빌리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사업

꿈꾸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며 미래의 모빌리티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첨단기술 집약의 결정체, UAM(Urban Air Mobility). 회사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앞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다.

새로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

UAM(Urban Air Mobility)은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3차원 도심 항공 교통체계, 즉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를 의미한다. UAM의 핵심은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땅이 아닌 하늘로 다닌다는 점인데, 환경·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UAM은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 개척으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패러다임 창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 비용을 70%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2025년 상용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2022~2024)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사업을 개시했다. 회사 역시 관련 컨소시엄(대우건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휴맥스모빌리티, 아스트로엑스)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제안서를 지난 5월에 제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신사업에 적극 투자하며 통합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온 회사는, 지난 2020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건설 산업용 원격 드론관제시스템인 대우드론관제시스템 'DW-CDS(Daewoo Construction Drone Surveillance)'를 구축하였는데, 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와 드론원격제어를 수행하는 장치를 통해 자체 개발한 영상관제플랫폼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최대 256개 현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듯 항공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와중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제안한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K-UAM이 바꿀 첨단기술 집약형 미래

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어떻게 발전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선보였다. UAM은 (1)섬 지역 간의 연계수단 (2)UAM 관광산업 (3)특수목적형 UAM (4)도심 연계 등 4가지 방향으로의 운영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인프라 구축 및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에 따라 관광 및 교통수단을 연계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선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AM 산업은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 건설사는 UAM의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지상 이동수단과 공중 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터미널)를 설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 49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버티포트 운영을 통해 미래 신사업에 진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회사가 투자한 아스트로엑스는 2022년 3월 국내 최초의 수륙양용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 시험비행에 성공하였고 현재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을 넘겨두고 있다. 또한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용 기체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수직이착륙 eVTOL(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전기 수직이착륙 비행체 기체로 사람 탑승이 가능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와 아스트로엑스가 공동 개발 중이다. K-UAM 참여를 통해 회사는 항공 분야 신사업 진출과 기투자사와의 시너지를 활용,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꿈의 모빌리티

현재 UAM은 다양한 핵심 기술의 발전 덕분에 막연한 상상으로만 여겨지던 것들을 현실로 구현하는 꿈의 모빌리티로 급부상했다. 제한적이던 기존 항공 수단과의 차별성으로 평소 버스와 택시, 지하철을 타고 도심을 이동하듯 하늘을 날아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빠르면 2023년 에어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 중이고 국내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UAM 기체(eVTOL)개발사를 인수하거나 개발 협력에 동참하는 등 UAM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빨리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다양한 시범노선이 운영되는 동시에 용산역, 삼성역, 잠실역 인근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드론택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도심의 주요 건물 옥상은 드론택시 정거장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교통수단이 개편되어 도로와 주차장이 점유한 자리에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므로, 회사도 정부가 발표한 2035년 드론택시 대중화 시대 흐름에 맞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 분야 신사업 진출을 통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UAM 사업이 변화시킬 혁신적인 미래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UAM은 다양한 핵심 기술의 발전 덕분에 꿈의 모빌리티로 급부상했다.



대우건설이 투자한
아스트로엑스의 PAV



대우건설이 지난 7월
드론·UAM박람회에서
제시한 버티허브 모델링



신나고 짜릿한 '8월의 크리스마스'

2022년 꿈나무 초대행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꿈나무 초대행사가 다시 부활했다. 2년 만에 돌아온 꿈나무 초대행사는 많은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그야말로 흥행 대성공! 아빠, 엄마가 일하는 회사의 모습이 궁금한 어린 꿈나무들의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2022 꿈나무 초대행사'의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2022 꿈나무 초대행사'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대우건설과의 설레는 첫 만남

지난 8월 3일, '꿈나무 초대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아침부터 본사를 가득 메웠다. 이날 모인 꿈나무들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 인파를 헤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부모님의 회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껏 들떠있었다. 환영식에서 대형스크린으로 바라본 대우건설의 모습은 아이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회사보다 더 멋지고 대단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영상으로 기본 탐색을 마치고 이제 진짜 대우건설을 알아볼 시간!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아빠, 엄마가 근무하는 자리도 보고, 부모님이 같이 일하시는 동료 직원들과 인사도 나누며 그간 쌓아뒀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기술연구원에서는 회사의 주요한 기술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센 바람이 나오는 풍향동에서 바람을 몸소 느끼며 얼마만큼의 바람에 건물이 버티는지를 체험해보고, 음향 실험동에서는 소리의 흡수와 반사를 체험하며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거대구조실험동은 마치 재미난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았다. 위험천만한 실험이었지만,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길이나 다리 등이 어떠한 구조로 공사되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신나는 캠프 속으로!

회사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행사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방학을 맞이한 꿈나무들의 신나는 여름캠프! 아이들은 안성에 위치한 너리굴문화마을로 이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건설의 기본은 안전이듯 모든 활동의 기본 또한 안전이다. 문화마을 입소와 동시에 1박 2일 동안 꿈나무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행동, 물놀이 주의사항 등의 안내와 함께 신나는 물놀이가 시작되었다.

준비운동의 끝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물 속으로 돌진하는 아이들. 게임을 가장한 물 안에서의 몸풀기도 마냥 신나기만 하다. 이게 유튜브에서 봤던 버블 파티인가? 수영장 가운데에 커다란 대포가 다가오더니 이내 보글보글 거품을 쏟아냈다. 덕분에 아이들은 평소 텐션의 2배, 아니 10배로 UP되어 체력의 한계에 도전이라도 하듯 물놀이에 푹 빠져 즐거운 모습들이다. 혹여 아이들의 체력이 방전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옆에서 간식을 대령하는 직원들의 손길 또한 분주해진다.



거대구조실험동은
아찔했지만 모든 것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위)기술연구원에서 회사의
주요한 기술체험을 해본 시간
(아래)1박 2일 간 신나는
캠프가 준비되어 있는
안성너리굴문화마을로 입소





(위)신나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친해지는 시간
(아래)물놀이 후 다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는 신나는 BBQ 파티

물놀이에 이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코스는 바로 BBQ다. 삼겹살, 소시지, 각종 야채를 고사리손으로 직접 구워 먹어보는 시간. 식탁의 한쪽에서 고기를 굽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라면을 끓이기기에 여념이 없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행거주니 이날의 고기는 더욱 더 꿀맛이다. 곧바로 캠프파이어와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니 체력 비축을 위해 많이 먹어두는 게 남는 것!

오늘 처음 본 서먹한 얼굴들이지만 공통된 주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캠프파이어다. 안타깝게도 비 소식이 있어 다들 강당에 모였지만 그 열기만큼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보다 더 뜨거웠다. 사전에 장기자랑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노래, 춤, 태권도, 악기, 기타 연주 등 끼를 발산하려는 꿈나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조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 끼가 많은 친구, 춤을 잘 추는 친구 등 친구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새로 쌓은 우정과 함께 흡사 클럽을 방불케 하는 광란의 밤이 저물어갔다.



텐션 업되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듯 신나게 즐기는
즐거운 물놀이

화합과 도전으로 성장한 아이들

이튿날의 여정은 안성 너리굴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공예 체험이 시작이다.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 가죽 공예, 석고 방향제 만들기, 수제 비누 만들기,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거리가 제공되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작품에 자신들만의 색을 입혀 하나둘 근사한 작품을 완성해냈다. 따로 또 같은 이번 체험에서 아이들은 화합과 소통을 넘어 도전과 성취감까지 맛보며 또 한 뼘 성장해나갔다.

다음 일정은 대우건설 주거문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써밋 갤러리'. 써밋 갤러리 투어는 신기한 것 투성이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꿈나무가 과반수를 훌쩍 넘어서지만, 각자의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생소한 시스템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써밋 갤러리 자체가 아빠, 엄마 같은 일반 직원들에게도 투어가 제한된 장소라고 하니 아이들에게는 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1박 2일의 짧지만 굵은 일정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은 대우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적었다. 설렘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꿈나무 초대행사는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22년 행사에 참가한 91명의 꿈나무들에게 긴 여운을 선사한 8월의 크리스마스, 이날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아이들이 더 큰 꿈나무로 무력무력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본다.





Summer, Play with Daewoo! 2022 대우건설 영어 캠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 아이들은 방학 동안 그간 부족했던 공부를 보충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체험하며 성장해나가는 기회로 삼는다. 이처럼 중요한 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
대우건설 수원인재원에 27명의 초등학생이 모였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내공을 쌓을 수 있었던
임직원 자녀 영어캠프, '2022 Summer, Play with Daewoo'의 일주일을 들여다보자.



1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4박 5일 동안 초등학교 5,6학년 27명이 함께 한 대우건설 영어캠프가 진행되었다. 2 아이들은 2개의 반으로 나뉘어 오전에는 아카데미한 커리큘럼을, 오후에는 액티비티 위주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소화하였다. 3 이번 프로그램의 기본 규칙은 EOP(English Only Policy). 원어민 교사와 자유롭게 대화하며 영어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그 핵심이다. 4 영어캠프에 정대우과 솔PD가 떴다! 오후 액티비티 활동에 앞서 퀴즈도 풀고 댄스도 추며 몸도 마음도 야외로 나갈 준비 꾸-을. 5 Mission! Running Man. 부슬부슬, 오락가락하던 빗줄기가 다행히 잠시 동안 멈춰주었다. 이제 열심히 달릴 차례다. 6 토의와 토론 활동에 사뭇 진지한 모습들. 이 날은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선정하여 해당 그룹이 좋은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영어로 표현해도 팽팽한 대립 구도는 긴장감을 준다. 7 원어민 교사와의 1:1 코칭시간. 그날그날의 활동을 체크하며 다음날 수업을 대비하는 시간이다. 8 정대우 과장님의 인기는 어딜가도 대단하다. 영어캠프 현장, 유튜브 촬영을 마무리하며 기념사진도 찰칵!



정직과 성실로 세운 정도경영正道經營

지난 3월 16일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품질과 안전관리를 기본으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성장해온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은, 이제 정직과 성실의 정도(正道) 위에서 같은 꿈을 꾸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본 내용은 간담회의 축약본이며 지난 후에 이어 마지막 회로 게재됩니다.

48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은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양질의 시공으로 정직하게 법과 원칙의 정도(正道) 위에서
국내 초일류 기업을 향해 정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49

품질과 안전관리는 기본이다

저는 항상 안전과 품질, 두 가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평면 배치도나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모두 제가 직접 결재했고, 모델하우스 공사 중에 한두 번은 꼭 직접 가서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당 직원들이 제 마음을 알고 수많은 모델하우스 모두 알아서 잘 지어놓습니다.

안전관리는 더 말할 게 없죠. 현장 소장이나 기사님들에게 전국의 현장을 일일이 가서 제대로 공사하는지 점검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예전에 광주시 화정동의 모 기업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 이후 더욱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도면을 모두 가져오라 해서 직접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생길 위험이 있는 벽돌 대신 석고보드를 사용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비용이 더 추가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란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청소를 깨끗이 자주 하라고 일러둡니다.

현장 관리가 잘 되어야 일 진행이 빨리 되고, 그래야 협력업체도 함께 돈을 벌고 또 다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아직도 제가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처럼 좋은 세대에 태어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꾸준히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나주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할 때도 사람들이 그 땅은 돌이 많고 평坦하지 않아 골프장하기 힘들다고 모두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토목공사에 100억 원을 더 쓰겠다고 하고 과감히 시작했습니다. 땅을 다듬고 물이 안 새게 흙으로 방수를 완벽히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행한 결과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골드 리조트에 스파 시설을 지을 때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긴 수로를 짓는데 이걸 콘크리트로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틀림없이 금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이 지나도 튼튼할까를 계속 연구한 끝에 16미리로 보를 만들어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냈죠. 그렇게 굳건하게 만들었으니 17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합니다.

항상 설계에서부터 원칙을 지키면 그 공사는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튼튼한 기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초일류 기업을 향해

저는 직원들과 함께 오래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덕분에 저희 회사에는 저와 함께 오래 일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업무 분야에서 20년, 25년쯤 되니까 이제 알아서 척척 해결합니다. 덕분에 제가 실무에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경영방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 속에 성장하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자, 둘째, 모든 공사는 양질의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리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만약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개인 재산을 안 만들어 놓느냐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염려 마라, 절대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요. 고도 성장한 기업 중 하나가 중흥그룹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직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정창선'하면 정직하고 법이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덕분에 중흥그룹이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그런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은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양질의 시공으로 정직하게 법과 원칙의 정도(正道) 위에서 국내 초일류 기업을 향해 정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카약 체험

나와 강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몸은 세상의 길 위로 흘러 나간다'. 소설가 김훈이 표현한
자전거의 매력은 그대로 강물 위에서 흘러 나가는 카약에도 적용된다. 한강과 함께 유유히 흐르며
강물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오롯이 나만을 위한 힐링 타임을
즐기고 싶다면 언제든지 물과 함께 흐르는 카약 위에 몸을 실어볼 일이다.

김람원
매교역푸르지오SK VIEW현장

나선희
동탄푸르지오시티워스현장

이영은
매교역푸르지오SK VIEW현장

우정연
매교역푸르지오SK VIEW현장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

지치고 바쁜 일상을 벗어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 멀리 가자니 교통체증과 피곤함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굳이 먼 곳을 찾는 대신 가까운 도심 속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한강 위에서 유유히 흐르며 강물과 하나가 되는 카약은 접근성도 좋고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조종이 쉬워 인기있는 수상스포츠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카약은 카누와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보통 카약은 앉는 곳에 덮개가 있어 발부터 허리 부분까지 몸이 배에 잡기는 형태이지만 카누는 덮개가 없이 오픈된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카약은 폭이 좁고 길게 만들어지며 카누는 폭이 넓고 카약에 비해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동그스름한 느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패들(Paddle)이라고 불리는 노에 있는데, 카누는 물을 젓는 부위인 블레이드가 패들의 한쪽에만 있다. 반면 카약은 패들 양쪽에 블레이드가 있어 양쪽을 번갈아가며 짓는다.

카약은 원래 북극해 연안의 그린랜드와 알래스카, 알루샨 열도지역에 거주하던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던 보트를 개량한 것으로, 패들링 스포츠의 역사는 바로 카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영국에서 지식인들이 보다 폭넓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던 보트를 개량해서 만들어 타고 다니다가 스포츠 경기로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

카약은 전문가용인 싯인(sit-in)과 일반용인 싯온(sit-on)의 두 종류가 있다. 싯인(sit-in) 카약은 카약의 좌석이 허리둘레와 꼭 맞아 '몸 일체형'이라 불린다. 몸과 카약이 붙어있으니 속도를 내기 쉽지만 숙련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반면 일반용인 싯온(sit-on) 카약은 좌석이 평펴짐해 편하게 앉을 수 있어 '몸 분리형'이라 불린다.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탈 수 있지만 속도는 덜 난다는 단점이 있다. 다리는 짹 펴고 탈 수 있으며, 패들은 블레이드 중 긴 쪽을 위로 하며 움푹 들어간 쪽이 뒤로 향하게 한다. 양쪽에 노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균형잡기가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이 과정에서 노 끝의 물이 타고 흐르며 카약 안으로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이렇듯 장단점이 공존하는 카약이지만 최근 무동력 수상 레포츠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없이 한강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카약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저 멀리 여의도를 배경으로 붉은 하늘이 한강 위로 넘실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바람이 강물에 스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인가 싶은 생각에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물 위에서 진한 동료애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잠시의 여유를 즐기며 친한 동료들과 뜻깊은 시간을 즐기고 싶었다는 대우의 '우먼 파워' 4인방이 이 특별한 카약체험을 위해 한강으로 모였다. 매교역푸르지오SK VIEW현장 김남원 사원, 우정연 사원, 이영은 대리, 동탄푸르지오시티워스현장 나선희 대리가 바로 그들. 회사가 아닌 바깥에서 만나 즐기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해질 무렵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한강을 배경으로 카약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기대가 컸다고.

“일 년 전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시간에 비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한강 위에서 아름다운 노을 아래 선셋 카약을 즐기다 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도 생기고, 우정도 더 돋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죠. 여름 내내 무더위에 힘들었는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도 확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더 기대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종일 함께할 수 있었지만, 다른 현장으로 흘러진 후에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 더 아쉬웠다는 이들. 그래서 함께 물 위에서 즐기는 카약체험이 더욱 뜻깊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다.

오늘 카약체험을 할 장소는 반포한강공원에 위치한 '더리버' 현대요트장. 카약은 따로 준비물이 필요없고, 갈아입을 옷과 물이 잘 빠지는 신발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딱 맞도록 끈을 조절한다. 간단한 준비운동 후 패들을 이용해 노 젓는 법을 배워본다.

“패들은 세워서 저어야 하고 노를 물 속 깊게 넣어 저어야 앞으로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원쪽 방향으로 노를 젓고, 반대 방향은 또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요. 며칠 전 비가 많이 와서 유속에 훤힐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을 들은 후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카약 위에 몸을 실어본다. 배운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카약킹이 생각보다 쉽진 않다. 분명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물살에 훤힐려 자꾸만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다. 같이 출발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벌써 저만큼 멀어져 간다.

패들을 잡고 있는 팔이 점점 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이 난다. 한강 위에 나 혼자 오롯이 둑둥 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는다. 어느새 점점 붉어지는 하늘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선사하는 장관을 보는 재미는 덤. 저 멀리 여의도를 배경으로 붉은 하늘이 한강 위로 넘실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바람이 강물에 스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인가 싶은 생각에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일 년 전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시간에 비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한강 위에서 아름다운 노을 아래 선셋 카약을 즐기다 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도 생기고, 우정도 더 돋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죠.”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카약체험

붉게 물든 석양과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에 빠져 있다보니 어느새 너무 멀리 와 있음을 깨닫는다. 다시 돌아오라는 안전요원의 신호에 다시 열심히 반대방향으로 노를 저어 본다. 동료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끌어주고 서로 사진도 찍으며 웃고 즐기다보니, 어느덧 물보다 진한 동료애가 피어오름을 느낀다.

“한강 위에서 하는 체험이라 처음엔 겁이 났지만 친한 사람들과 같이 하다보니 무서움은 사라지고 마냥 신나더라고요.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땀도 흘리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카약을 계기로 다른 수상스포츠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동료들과 또 다른 종목에도 함께 도전해보고 싶네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복잡한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바람과 강물이 주는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었던 위로와 치유의 시간. 흐르는 카약 위에서 만난 여유와 감동, 그리고 그보다 더 진한 이들의 우정이 빛나는 석양처럼 반짝이는 웃음과 함께 영원히 머물길 바래본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카약체험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구명조끼 Life vest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수상스포츠를 즐길 때 안전장비만 잘 착용해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구명조끼는 본인의 신체 사이즈와 체중에 맞는 것으로 고르고 적절히 조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머리 위로 팔을 똑바로 들고 있을 때 몸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카약을 위한 아이템

패들 Paddle

카약과 카누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패들이다. 카약은 양날 패들로 번갈아 저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패들은 충격과 마모에 강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빠르고 안정적인 카약킹에 적합하도록 정교하고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방수팩 Waterproof pack

수상스포츠를 할 때 방수팩은 필수 아이템이다. 휴대전화와 각종 용품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예방제품으로 잠금장치가 잘되어 있는지, 국제공인 인증기관의 방수 등급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확인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 새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물 빠지는 신발 Water shoes

카약킹을 하다 보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신발이 자연스럽게 젖게 된다.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신발은 필수. 가볍고 물 빠짐이 좋으며 바닥도 적당히 두꺼우면서 미끄러움이 적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쉽게 벗겨지지 않게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여 발 전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디자인이 적합하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新명절 트렌드’

‘명절’하면 사람들은 으레 대가족이 모여 왁자지껄 음식을 나눠 먹거나 멀리 성묘를 다녀오는 모습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젠 명절을 새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른바 ‘언택트 명절’이 새로운 명절 트렌드로 떠오른 것.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풍성한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명절 트렌드에 대해 알아본다.

성묘는 온라인, 별초는 대행으로

코로나 이후 가족이 다 함께 성묘를 가고 추모공원에 다녀오는 모습이 뜯해진 대신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비대면 온라인 추모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운영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추모관에 차례상을 꾸미거나 헌화, 분향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면 고인이 안치된 곳을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산소에 별초하러 가는 풍경 역시 많이 달라졌다. 고향 방문이 어려워진 이후 별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 별초 대행 서비스는 분묘 소재지 산림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산림조합 누리집 혹은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시, 분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약도 등을 알려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금액은 차량 접근거리와 분묘 수,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귀향 대신 ‘콕캉스’ 즐기기

코로나 여파로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안전하게 휴식을 즐기는 ‘콕캉스’도 새로운 명절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콕캉스는 방콕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대신 안전하게 분리된 숙소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여행을 뜻한다. 이에 맞춰 호텔들도 내부에 차례상을 차리거나 육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 및 명절 음식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추석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숙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동시에, 육놀이판이나 팽이 만들기 등 전통놀이 키트를 활용해 아이들과 즐거운 명절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주고받는 선물도 비대면이 대세

주고받는 명절 선물 또한 달라졌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선물도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 받는 사람의 주소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간편함 덕분에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로 선물을 주문해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용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또한 귀성을 못하는 대신 고급 선물을 선호하거나,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가성비 있는 선물을 하는 등 명절 선물도 양극화되는 분위기라고. 어떤 선물이든 주는 이의 정성과 받는 이의 고마움만으로 충분히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되지 않을까.

‘줌(zoom)’으로 드리는 온라인 차례

조상을 기리는 차례 역시 코로나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바로 줌(zoom)차례가 그것.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가족들이 온라인 ‘줌’으로 동시에 접속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각 집에서 원하는 대로 과일이나 술을 걸들이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절을 올린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영상통화나 영상편지를 만들어 보내드리기도 한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인사를 드리거나 음식을 전하기도 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른들을 찾아뵙는 형식은 변했지만 정성들인 마음은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맞춤형 ‘신예기(新禮記)’로 슬기로운 언택트 명절을 보내보자.

스마트한 명절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List

1. 제사의 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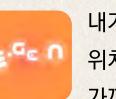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 음식 놓는 위치나 지방 쓰는 방법 등을 놓고 헤맬 때가 있다. 이럴 때 유용한 어플로 추석에 꼭 필요한 차례상 차리는 순서와 제사의 방법, 지방 쓰는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2. 해피트리



핵가족화가 되면서 친인척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요즘, 복잡한 가계도와 호칭을 쓰는 방법 등을 놓고 헤맬 때가 있다. 이럴 때 유용한 어플이다. 어플을 활용해 가계도를 작성하며 나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응급의료정보제공



내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는 및 악국을 찾을 수 있고 응급실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어플이다. 특히 가계도를 작성하며 나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별 응급조치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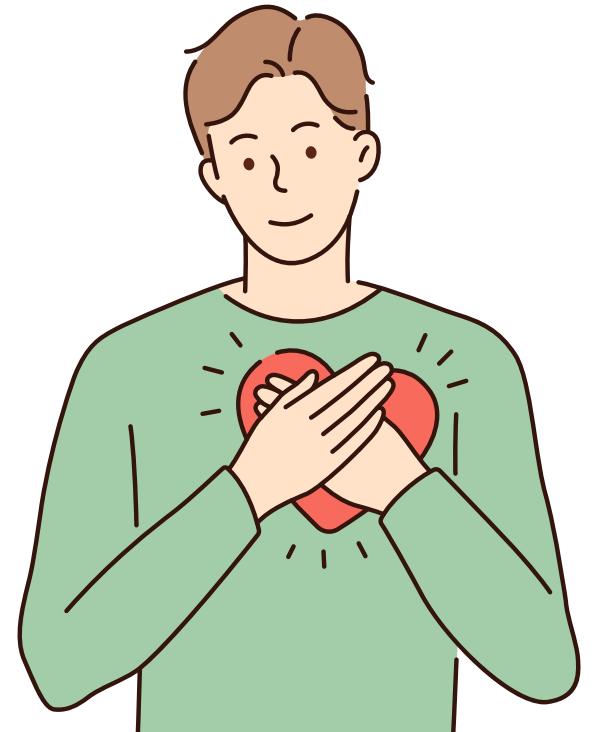
4. 고속도로교통정보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속도로 노선별 소통상황과 CCTV 정보를 제공하며 현 위치 기반 주변 고속도로 교통상황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피로와 불안감, 무기력증에 시달린다. 일상 없이 노력하는 데도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하기만 한 당신. 정신없이(mindless)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마음을 챙기며(mindful)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건강하게 마음근육 키우는 법

현대인들의 '마음'이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취업·이직·결혼 고민부터 실적 압박, 경쟁, 가정 불화, 노후 불안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느끼는 '번아웃(burnout)증후군'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테고, 즐거운 여름휴가나 흥겨운 지인과의 술자리도 그때뿐, 스트레스와 불안, 피로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모든 건 상처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상을 보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마음근육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일상 속에서 '자연과 가까이 하기'이다.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야외의 푸른 공간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평균 약 1%p, 화창한 햇빛은 약 2%p, 야외에서 걷거나 하이킹을 할 경우 약 2%p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환경에 놓였을 때 스트레스 감소, 인지 회복, 자기 조절에 대한 긍정적 영향 등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바쁜 일상에서 멀리 떠날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집안에 자연을 들여놓는 '플랜테리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플랜테리어'란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의미하는데, 마음의 안정과 눈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반려식물을 키우며 정서적 안정을 얻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식물을 두는 환경과 특성에 따라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면 되는데, 테이블 야자나 미니 선인장은 키우기도 쉬울 뿐 아니라, 전자파 차단 및 공기정화 효과도 있어 사무실 위 반려식물로 인기가 많다.

둘째, 걸으면서 자연 속에서 활력을 충전하는 것이다. 산책같은 가벼운 신체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가볍게 가까운 산책로를 찾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잠깐 걸더라도 바른 자세와 편안한 옷차림이 중요한데, 몸과 목은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의 약간 위, 턱은 살짝 당긴 상태가 걷기 올바른 자세다. 몸의 무게중심은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바깥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 걸을 때는 땀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자. 운동화는 지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발가락을 너무 조이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기분을 좋게 하는 먹거리를 섭취한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식들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돋는다.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호두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지원하고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대표적인 영양소이다. 지난 세기 동안 서양 식단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든 식품이 사라지면서 정신 질환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뇌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꼽히고 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등의 베리류도 우울증세에 효과가 있는 음식이며, 버섯 역시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있어 기분을 안정시키며 건강에 좋은 장내 세균을 촉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다.

넷째,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에 집중해본다. 마음챙김 명상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사내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만큼 각광받고 있는데, 심신 이완, 인격 성숙, 주의력 상승, 공감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객관화'시켜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를 생활 속에 실천하다 보면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일상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명상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속 마음건강 챙기는

tip



Wellbeing Food 잘 먹기

마음 건강의 문제는 식사패턴의 변화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너무 적게 먹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폭식해서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 우울, 불안과 관계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식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사를 잘 못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하면 교감신경이 향진되어 신체 및 감정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든, 고프지 않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양질의 음식을 적당량 먹는 것이 중요하다.



Having Fun 잘 놀기

평소 좋아하는 운동이나 여행 등 취미활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할 때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의욕을 증가시키고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준다. 운동은 제2의 항우울제로 불릴 정도로 우울증 위험을 크게 낮추어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왕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여행 등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Healthy Sleeping 잘 자기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수면습관이다. 잠은 몸의 회복과 충전, 낮 동안 학습하고 경험했던 것들 중 불필요한 것 삭제, 감정 조절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면 잠을 잘 자게 된다.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아침에 햇빛을 쪼인 15시간 후부터 분비되기 때문에, 내가 잠들고 싶은 시간보다 15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송편 빙기>



그리고, 다시 만난 가을

잠깐 머물다 눈 깜짝할 사이 떠나버리는 가을이 못내 아쉬워 떨어지는 낙엽 위로 열심히 추억을 쌓아본다. 쌀쌀한 가을바람 타고 흐 떠났다가 더위 끝자락을 붙잡고 살며시 찾아온, 다시 만난 가을.



박재현 과장 | 오만 DUQM REFINERY PJ(현장)
#작년가을 #부여 #궁남지 #벌써일년



금동기 과장 | 토목견적팀
#가을추억 #오스트리아_장크트길겐 #천고마비



김윤진 대리 | 부산범일동주상복합현장
#여름끝 #가을시작 #바람 #숲



이승목 과장 | 수주심의2팀
#야구직관 #시원한날씨 #우리팀화이팅

대우건설인 7+8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 &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 1 김민재 (싱가포르도시철도J109 PJ현장 김진남 부장)
- 2 박혜윤 (강진광주고속도로1공구현장 허성태 과장)
- 3 김명희 (토목견적팀 권성민 사원)
- 4 조형진 차장 (울산복합터미널1단계 건설공사 PJ현장)
- 5 고민경 (공정설계팀 고현옥 차장)



다른 그림 찾기 이벤트

업서에 실린 다른 그림 찾기에 참여해주세요. 두 사진에서 다른 곳을 5군데 찾아서 사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업서에 있는 다른 그림 5군데를 찾아 표시하신 후 우편으로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
2022.9.19~10.28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대우건설인> 7+8월호 독자의견 당첨

김지왕 (김철환 부장-나이지리아 NLNG T7 ONSHORE PJ DECN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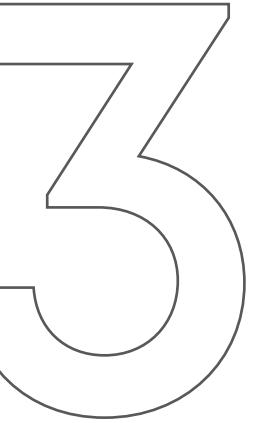
고3인 저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개발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꿈입니다. 컴퓨터 분야라면 당연히 IT계열에서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에서 웨어러블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건설회사임에도 IT와 융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조 장치를 개발한다는 것이 인상깊어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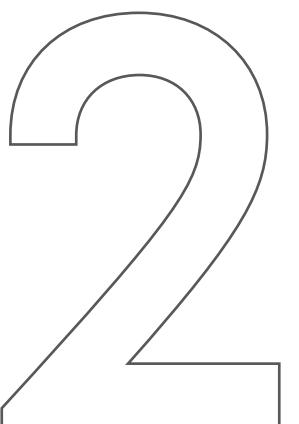
애플 에어팟 프로

고윤서 (고완석 부장-나이지리아 NLNG T7 ONSHORE PJ 라고스현장)

웃음 칼럼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해외에 나가 계셔서 자주 못 만나지만, 짧은 점심 시간에 영상 통화로 대화하곤 합니다. 아빠의 소소한 농담이 저를 웃게 만들기 때문에 아빠의 농담은 제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김덕임** (한상현 부장-해외마케팅팀)

DW History 칼럼을 보고 워크아웃 시기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원이었던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참담한 심정이었으나, 놀랍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두 하나된 모습으로 의기투합하여 시공 능력 1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강민규 차장** (연희공원푸르지오라-플레르현장)

매호마다 원공 현장을 보면 직원들이 고생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항상 좋아 보였습니다. 인천 종주길을 걸으며 준공이 임박한 현장 주변을 지나갔는데 기하학적 구조물의 보행교에 야간조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 보세요. 독자 퀴즈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st.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대우건설 사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노순일 과장 (배관설계팀)

신입 사원들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두려움보단 설렘이 많던, 그리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신입 사원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시원 사원 (주택문화관)

MBTI가 회사면접에서도 물어볼 만큼 보편화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사보에서도 보게 되어 내심 반가웠습니다. 아직 서먹한 신입사원들이 MBTI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트렌디한 주제로 사보가 한층 더 젊어진 것 같아 마지막 장까지 재미있게 봤습니다.

배영준 (융합기술연구팀 배경태 책임연구원)

말과 교감하는 힐링 스포츠, 승마를 보고 나도 말을 타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말을 타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흥미가 있었습니다.

김동현 과장 (안전운영팀)

주말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을 하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한동안 소중한 것을 잊고 지냈다는 생각에 많이 웃기로 다짐해봅니다.

시티즈 에스프레소
캡슐커피머신

<이번 호 선물>

- 1등: 시티즈 에스프레소 캡슐커피머신 (1명)
- 2등: 기프티콘 3만원 상당 (2명)
- 3등: 스타벅스 음료권 1만원 상당 (5명)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com.com

02-2288-3297



바다 속을 달려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저터널 기술



자구를 지키는 발전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친환경 발전 사업



꿈꾸던 삶,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플랫폼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 보세요. 독자 퀴즈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st.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대우건설 사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Great Possibility

대우건설